

6·6 공권력 투입과 '시국법회' 이후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지난 15일 조계사에서 열린 '시국법회'는 청정도량을 지켜내겠다는 2천만 불교도들의 강한 의지를 고백하는 데 표출시킨 법회였다.

조계사 공권력 투입 바로 다음날인 7일 조계종 총무원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공식사과와 관계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등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으며 전불련, 실천승가회 등 재야세력들은 총무원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결국 지산, 청화, 명진스님을 비롯 실천승가회 등 개혁주도세력들의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개최요구와 범 불교대책위원회의 강도높은

아 조계종이 과거와는 달리 사태발생 이틀만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 원만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 한 것은 개혁종단이 출범후 첫 시험대라는 부담과 함께 불교 위상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 하겠다는 소신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타종교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 제고와 함께 외부로 비추지는 타종교단체와의 연대속에 나름대로의 몫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 천주교 등 종교단체의 반발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것과는 달리 정부는 종교계의 입장

정부사과 관련자 처벌이 열쇠 '성지유린' 규탄 확산 종교계 총력대응



성소 회복을 위한 종교인 행진

"성지 난입 묵과할 수 없다" 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 등 4개 종교단체가 연대한 '성소회복을 위한 종교인 행진' 대회가 지난 16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4백여 종교인들은 조계사에서 명동성당까지 이르는 성지유린 규탄 기수 침묵행진을 벌였다.

대 정부 규탄이 계속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다시 시국법회를 통해 공권력투입을 '성역유린과 권위주의 통치방식'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사태재발방지책, 내무장관등 관련자 처벌, 구속노동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등 대정부 규탄 수위를 한층 높였다.

지난해 9월 전기철 노조사태 때는 조계사에 난입한 공권력에 대해 일부 재야단체들의 묵소리만 높았을 뿐 개혁회의는 아무런 대책없이 호법부장이 사퇴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었다. 이것은 과도정부적인 개혁회의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상충으로 미뤄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이번 한통사태를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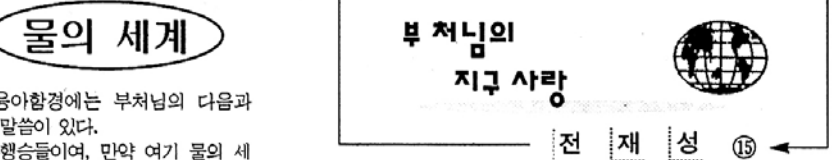
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 사태로 인한 정부와 종교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이번 사태가 사회, 경제, 남북문제, 민족화합등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안은 상황에서 정부, 종교계간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민들간에 형성될 경우 정부의 태도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심'의 상징인 종교성지를 지켜내겠다는 종교인들의 의지를 정부가 얼마나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따라 사태해결의 시기와 방법이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영우 기자

산소와 수소 원자 결합 생명체 유지 용매 역할



물(水)의 세계

상용어합경에는 부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여기 물의 세계가 괴로움을 수반하면 괴로움을 드러내고 즐거움을 드러내지 않는 순전한 괴로움이라면, 못살들은 물의 세계에 탐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로 물의 세계가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며, 즐거운 까닭으로 물의 세계에 탐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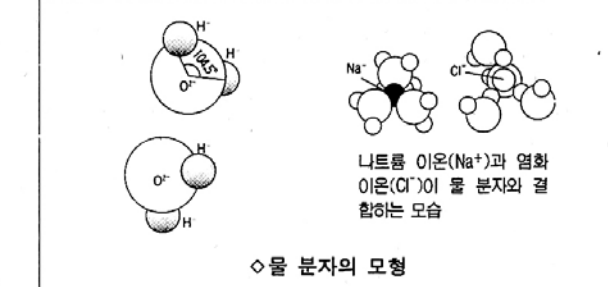
물은 아주 매력적인 분자구조를 갖고 있다. 물은 분자구조상 산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둘이 결합해 있는데, 두개의 수소원자가 그림처럼 묘하게 104.5°의 각을 이루고 있으면서 마치 한쌍의 불처럼 한쪽에 쏠려 있다. 물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화학반응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생체내에서의 생화학 반응을 이끌고 있어 생명체를 유

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능력은 물의 분자구조상 특징에 연유하는 것이다. 전자를 주는 수소는 양전기로 대전되어 있고 전자를 받는 산소는 음전기로 대전되어 있다. 이런 이종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용이하게 화학반응을 하며 고체(빙)뿐만 아니라 기체(수증기)를 잘 용해시키는 용매로서 생명체를 수반한다.

물(熱)과 관련해서는 다른 모든 물질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는데, 물은 4℃일 때가 최대여서 생체계를 보존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만약 물의 밀도가 커질수록 온도가 내려만 간다면,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높은 압력으로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수증상태는 지렁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물은 불(태양열)을 흡수했다가 서서히 방출함으로써 지구의 온도를 조절한다. 지구와 태양에서 같은 거리에 있지만, 물이 없는 달의 표면은 낮에는 영상 125℃이고 밤에는 영하 160℃로 떨어진다. 그 이유는 달에는 물이 없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태양과 같은 불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물의 순환이 시작된다.

지상의 물은 증발되어 수증기가 되



어 대기권에 머물다 비나 눈이 되어 떨어진다. 그중 대부분은 바다에 다시 떨어지고 10%가 육지에 떨어져서, 산림에 의한 증산작용으로 다시 지상의 비가 되어 순환한다.

이처럼 물은 유연하고 만유를 포섭하는 매력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요건을 넘어서 인간의 탐착의 대상이 되어왔다. 물론

행한 일일 수도 있다. 1cc의 생체내의 물인 침속에도 5억의 세균의 생로병사를 수반하는 물의 생태계의 실상에 눈을 떠보라. 우리는 물에 대해 탐착하기 보다는 자비와 인내를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계(水界)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보는 전도된 망상과 탐욕이 물의 세계의 본래적인 괴로움을, 비구름의 산

성화, 하천오염, 지하수오염, 해양오염을 통해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의 세계를 향락하는 자는 괴로움을 향락하는 자이며, 그 괴로움을 향락하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없는 달표면 일교차 285℃ '죽은 땅'

그 탐착은 위와 같은 물의 성질을 잘 모르는 인류의 근시안적 탐착이었다. 그 결과 무한대로 엄청난 것 같은 지구상의 물은 심각하게 오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물의 오염을 통해서 비로소 물의 세계의 괴로움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은 다

신행수첩

- 역대조사 깨달음 세계 원효학당 전등록 강좌**
역대 조사(祖師)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엄격하고도 정확하게 풀이해 주는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의 원효학당 전등록(傳錄錄) 강좌가 개설된다.
송나라 도원승님이 지은 전등록은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역대 선종 조사들의 계보 및 법문과 어록을 적은 책으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깨달음의 체험과 인생의 핵심을 찌르는 법문들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강의는 7월4일부터 3개월간
- 공덕경 독송 철야예불 문수·보현회 칠불사 참배**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자신을 되돌아보고/보람된 삶을 위한 서원을 한다던 비록 몸은 피곤할지라도 마음은 하늘하늘 봄바람처럼 가볍고 향기로운 것이다.
체계적인 정진공부에 몰두해 온 문수·보현회(회장 공세화)가 삶의 지혜를 찾아 오는 7월 8일, 9일 이틀간 경남 하동 칠불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 대중불자회는 남도땅에서의 구도법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관측사를 참배할 예정이다.** (02)736-4848
- 건강한 젊음 밝은 미래 약물남용 예방 교양강좌**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맑
- ◇ 불교신행연구원 성지순례단은 지장보살의 성지인 구화산을 비롯 보타산, 낙가산, 국청사등을 참배한다.** (사진은 구화산 관음봉)
- 계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담당하게 될 이데올로기 들꽃과도 같은 존재다.
수도로 발전된 산업사회의 수많은 유혹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내고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오는 21일 오후 4시30분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우리의 미래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제목의 교양강좌를 실시한다.
초청강연으로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이해시키고, 약물의 남용의 실태를 '우리 아이들의
- 문화·역사 숨쉬는 남도 도감사·무위사 순례**
〈문화유산 탐사기〉의 저자 유홍준교수는 답사일번지로 남도 땅을 지적했다. 호남의 남쪽은 문화와 역사가 살아숨쉬는 현장이라는 유교수의 설명이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때에 조계사 대승불자회가 이곳 남도 땅 영양의 도감사와 강진 무위사로 구도행각을 떠난다.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구도법회는 참배뿐 아니라 문화탐사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도감사와 무위사는 모두 천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감사에서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시조인 도선국사의 향취를 느껴보기도 하
- 내일의 새싹 지혜와 자비로 키우세요 불교교육연, 어린이 지도자 강습회**
신록이 푸르게 물들어 햇빛이 빛이 발하는 계절,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에서는 어린이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오는 24일과 7월8일 2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강습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여름 불교학교를 위한 것으로 어린이 지도교사에게 요구되는 교과과정 및 교수방법론을 연구·수업한다.
선착순 60명에 한하는 이번 강습회는 어린이 지도교사 스스로에게 어린이들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지혜롭고 자비롭게 키우는 일보다 보다 나은 내일을 여는 지름길이 없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02)725-7527
- 국으로 제1회 불교성지순례를 떠난다.
관세음보살의 성지인 보타산과 낙가산, 지장보살의 성지인 구화산, 천태종의 발원지인 국청사 그리고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향주가 있다'며 그 아름다움을 격찬하는 물의 도시 소주와 지상의 낙원인 향주... 등을 둘러보게 된다.
이번 답사를 통해 깊은 신심과 중국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알차게 배우고 살피는 이번 성지순례에 뜻있는 불자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02)544-1533



나라는'이란 연극을 통해 알리게 될 이번 강좌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갈 이정표를 세우는 소중한 인연의 지기가 될 것이다. (02)421-6077~8

천혜의 관음·지장도량 중구불교성지 순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올바르게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 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오는 20일 우리나라 불교문화와 가장 연관이 깊은 중

20년간의 수퍼 베스트셀러 (경제학원론)의 저자, 前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 前 한국은행총재, 현재 이화여대 석좌(碩座)교수인 조순 박사에게서 듣는 새로운 사회건설의 방략(方略)들.

열린사회, 휴머니스트가 만든다
조순 지음

빗방울 하나씩 모여 썩은 강물 씻어내듯 작은 별 하나씩 모여 어둔 하늘 밝히듯 우리도.....

열린사회, 휴머니스트가 만든다

조순 지음

우수한 국민은 노력에 비해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고, 열등한 국민은 결국 남의 뒷전에 서서 남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시대 정책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우리의 질(質)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활동 규범이 되고 그것을 제약하는 제도(制度)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의 질을 높여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정치의 질을 높여야 하며, 언론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계화시대의 국명방송의 역할)에서

학문의 수준이 앞으로 훨씬 더 향상되지 않는다면 설사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수출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술이나 지식은 모두 외국에 의존하면서 선진국이 되기를 바랄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무역의 수치보다도 오히려 기술의 수치(收支) 또는 지식의 수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1인당 소득보다도 1인당 지식이 선·후진국을 판가름하는 더 확실한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발전방향〉에서

신국판 316면 정가 6,000원

서울 중구 신당동 292-42 전화 231 5450~2 팩스 231 5453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새로운 서울시 건설의 청사진

우리 서울 이렇게 바꾸자

〈경실련 정책 연구팀〉이 1년 여에 걸쳐 서울시의 개혁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행정, 재정, 교육, 주택, 교통, 도시계획, 복지, 기반시설, 환경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엮은 책. 서울시가 처해 있는 현실과 문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실련이 만들어 만든 서울 2000년 청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음/정가 15,000원

진정한 경제학의 학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

시대의 이념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 이들의 경제학은 어떤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답이었나? **28명의 경제학자와 10대 경제학파의 사상과 이론의 핵심내용을 정리.** 柳東民 편역/정가 10,000원

서울 중구 신당동 292-42 전화 231 5450~2 팩스 231 5453